

체감경기·임금실태 전국 설문조사 시행

중소영세 제조업 밀집 단지 40여 곳 조사 ... 조사 결과 바탕으로 법정 최저임금 인상 등 촉구

금속노조가 민주노총과 <2023 체감경기·임금 실태 전국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고물가·고금리에 지친 노동자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다.

조사는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6주에 걸쳐 진행된다. 금속노조는 특히 중소기업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 노동자 목소리를 듣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노조는 13개 지역지부, 10개 지역지회가 전국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제조업이 밀집한 40여 곳에서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설문 문항은 실적 경험, 사업장 경영 상태 등 노동자 체감경기와 생활비·임금 실태·최저임금 실태 등으로 구성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국회에 노동자 생계 대책과 법정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장기 경기침체, 고용 불안에 더해 물가 폭등, 난방비 대란, 공공요금인상, 밥값 상승, 실질임금 대폭 하락으로 노동자·서민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는 탄식을 입에 달고 있다”라고 정부의 경제 무능 사태를 꼬집었다.

노조는 “현재 고통이 집중된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중소영세 제조업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 노동자 실태와 원하는 정책을 파악하



는 작업이 필요한 때다”라고 실태 조사 의의를 밝혔다.

금속노조 실태조사 담당자인 이희태 노조 전략조직국장은 “소비자 체감경기 조사처럼, 노동자 처지에서 고용불안이나 임금 수준 등을 파악하려는 시도다”라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6월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탕단’ 같은 실천단을 운영해 공단을 중심으로 벌이는 순회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희태 국장은 “실태조사 참여를 늘리기 위해 지역별 상황에 맞춘 다양한 방안을 노조 차원에서 지원한다”라며 “지나해와 마찬가지로 커피 트럭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라

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산업단지 노동자 노동환경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지난해 전국 산업단지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전국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실질 대책 세우도록 하는 등 지역 공동사업의 성과를 만들었다. 노조는 올해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경기 반월시화산업단지, 인천 영세사업장 밀집 지역 등에서 산업단지 영세사업장 노동자 공동 휴게공간 마련, 휴게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가자! 금속노조


**"이대로 살 수 없다
세상을 뒤집자"**
**금속노조 1만 간부
총력투쟁대회**

2023.4.19. 14시 행진, 15시 대회

참가방침

전체 간부, 참가희망 조합원

(지부 지회 위원회 대의원, 지부 지회 교섭위원, 소위원 등 명할 단 모든 간부)

 **전국금속노동조합**